

데스크 시국



송기동 문화2부장·편집국 부국장

“갑갑진, 김경순, 김경식, 김경철/아빠 항상 제 옆에 계신 것을 알아요/ 날 지켜보시리라 믿어요/ 하지만 이따금 아주 이따금/ 가슴 저미게 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단 한 번만이라도 얼굴을/ 아빠 얼굴을 만져 보고 싶어요/ 못 다 이룬 오월의 꿈이여/ 식지 않는 망월의 피여...”

영정을 든 사람들이 무대에 등장해 망월동에 묻힌 영령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부르며 합창을 한다. 무대 분위기는 어둡고 무겁기만 하다. 지난달 27~28일 서울 국립극장 해오름 무대에 올려진 ‘이건용, 오페라 박하사탕’ 중 2장 ‘1998년 가을, 망월동 묘역’의 한 장면이다. 호명하는 이름들과 어우러진 나지막한 합창, 오케스트라 선율은 객석의 관객들을 순간 울컥하게 만든다.

5·18 소재 새 오페라 ‘박하사탕’

광주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광주문예회관과 국립극장이 제작한 오페라 ‘박하사탕’이 초연됐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갖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광주 시립오페라단 제작진과 출연진들은 앞서 ‘콘서트 오페라’로 선을 보였고, 이번엔 성공적으로 공연을 마칠 수

은펜칼럼



김창군 광주예술고 교감

그리 사납던 한여름 기세도 계절의 변화는 이길 수 없는 모양이다. 입추와 처서를 거쳐 가을을 알리는 절기인 백로도 지났다. 예로부터 백로에는 제비가 돌아 가고 기러기가 날아온다고 했으니, 가을가 바람에 나부끼는 물결새 이삭에도 가을 내음이 물씬하다.

조만간 산 위에서부터 단풍이 내리면 사람들은 그 화려함을 좇아 분주히 산에 오를 것이다. 붉히는 낙엽의 부스럭거리는 소리 속에서 천지에 흐드러진 붉은 그리움의 자취와 더불어 뒤안길로 돌아서는 흔적을 배웅하는 시간을 얻을 것이다. 온몸을 곱게 단장한 단풍과 길가에 나뉘는 낙엽이 가을을 보면서 세상을 돌아보는 겸허의 지혜와 함께할 것이다. 동전의 양면마냥 화려함 뒤에 남는 애잔함은 가을에서 얻는 깨우침인 셈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 일각에는 여전히 막말이 문제 되는 경우가 있다. 자극적인 용어를 통해 본인의 인지도를 높이거나 지지자를 결집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부적절한 용어로 인한 설화(舌禍)도 곤혹

기고



김재식 광주시 도시계획과장

인류의 가장 위대한 발명품으로 손꼽히는 도시는 고 정불변하지 않았다. 역사가 말해 주듯 도시는 주체적으로 변화를 이끌었으나 그 변화의 너머를 읽어 내지 못한 도시는 쇠퇴하기도 했다. 미국 디트로이트는 한 때 자동차 산업으로 미국 북부 지역에서 가장 풍요한 도시였지만 산업구조 변화와 경쟁력 약화로 쇠락했다. 하지만 도시 재생을 통해 극적으로 부활했다. 스웨덴의 조선포시 말피도 1970년대 석유 파동으로 내리막을 걸었으나 구성원의 총의를 모아 위기를 헤쳐 나왔다. 말피의 코러스 공장 건물은 지금 스타트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 인큐베이터(Media Evolution City)로 환골탈태했다. 이들 도시의 사례는 ‘도전과 응전의 역사’라 할 수 있다. 바이흐로 도시 위기를 제대로 진단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혜안과 과감한 결단이 도시의 미래를 좌우하는 시대이다.

광주는 지금 변화의 시기를 맞고 있다. 인류사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코로나 팬데믹 등 위기 상황에 대처 하면서도 미래 먹거리를 동시에 창출해야 하는 시점이다. 광주형 일자리의 상징인 광주글로벌모터스(GGM)

“우아한 진주처럼 삶은 아름다워”

있었다. 오페라 박하사탕은 지난 2000년 개봉된 동명의 영화(감독 이창동)가 원작인데, 한국 창작음악계의 거장 이견용 작곡가와 조광화 연출가의 손을 거쳐 새롭게 탄생했다. 영화와 마찬가지로 시간을 거슬러가는 이야기 흐름을 따라가면서도, 전남도청 앞 시민공동체 장면과 개성적인 인물들을 새로 설정해 오페라의 언어로 총 2막6장의 서사를 끌어간다.

8월 중순, 공연을 앞두고 막바지 연습이 한창이던 때 이견용 예술감독·작곡가를 인터뷰했다. 거장은 “(80년 5월 광주는) 예술가로서 전환점이었다”고 말했다. 30대 초반 청년 시절에 겪은 ‘80년 5월 광주’에 대한 마음속 ‘빛’에 대해 적은 작곡 노트에서도 이러한 생각을 엿볼 수 있었다. “...그 후 40년 동안 저에게 인간에 대한 희망을 환기해 주고 생명의 힘을 확인해 주는 원천 같은 것이었습니다. 작곡가로서 그 빛을 이번 에 갇습니다.”

그동안 작곡가는 합창곡 ‘분노의 시’ (1985년)와 칸타타 ‘눈물비’ (2017년), 관현악곡 ‘5월을 위한 장엄서곡’ (2019년) 등 ‘광주’를 염두에 둔 작품을 꾸준히 발표해 왔다. 그리고 오랜 마음속 ‘빛’을 내려놓으면서 원숙한 음악적 기량을 오페라 ‘박하사탕’에 오롯이 녹여냈다.

오페라 박하사탕의 하이라이트는 5장 ‘1980년 5월, 광주 금남로’ 장면이다. ‘아침이슬’을 부르며 등장하는 시위대에 이어 수레에 주먹밥을 싣고 오는 ‘함지박’과 ‘하순택’ 등 어머니들이 ‘주먹밥’을 합창한다. 나눔과 연대의 광주정신을 보여 주는 장면이다. 그러나 시민 공동체를 보여 주던 무대는 공수부대원들의 집단 발표

가을을 맞이한다는 것은

스러운 상황에 처하거나 언론의 지탄을 받는 경우를 간혹 보게 된다. 반대자의 비판과 지지자의 응원도 댓글의 형태로서 더욱 폭력적으로 증폭되기도 한다.

똑같은 상황을 놓고서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그 의미는 사뭇 달라진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는 철학자 하이데거의 말처럼, 말 자체가 존재의 거처이면서 말하는 이의 실체를 드러내게 된다. 나아가 ‘구시화복문’(口是禍福門) 즉 말로 인해 화(禍)를 자초하거나, 말로써 복(福)을 부르기도 한다.

요즘처럼 인터넷과 SNS가 발달한 시대에 괜히 어설픈 정보를 가지고 입을 놀리다가는 금방 구설에 오르기 마련이니, 옛 시조 중에 ‘말로써 말 많으니 말 말까 하노라’라는 구절처럼 입을 단음으로써 말로 인한 논란을 회피하는 것도 지혜일 것이다. 하지만 자기주장 없이 시류에 편승하거나 회피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말 한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다’는 속담처럼 제값 하는 말 하기는 바람직한 세상을 이끄는 중요한 일이다.

몇 해 전 베트남 축구 대표팀이 좋은 성적을 거두고 베트남 국민으로부터 사랑받을 때 박항서 감독은 언론에서 “저를 사랑해 주시는 만큼, 내 조국 대한민국도 사랑해 달라”고 말했다. 당시 한국과 베트남 국민의 심리적 거리를 좁히는 데에 이 말보다도 좋은 일은 없었을 것이다. 이처럼 말의 힘이 바른 역할을 하는 세상이야말로 우리가 살 만한 사회일 것이다.

그런 뜻에서 작가 이기주는 ‘말의 품격’이란 책의 서

로 ‘생명과 죽음이 뒤엉켜 붙은 현장’으로 급격히 바뀌고 만다.

작곡가는 서울 초연 후 기자에게 “이제 광주로 돌아갈 차례입니다. 광주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라고 말했다. 하지만 광주 공연 일정은 아쉽게도 광주문예회관의 리모델링 공사 등으로 인해 아직 잡혀 있지 않은 상태이다.

‘광주’를 뛰어넘어 세계 무대로

작곡가와 연출가는 오페라 박하사탕을 통해 야만의 시대에 무자비한 폭력 속에서 손수했던 한 20살 청년이 어떻게 붕괴되는지, 그리고 죽음과 삶의 투쟁 속에서 삶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 준다. 극 초반에 폭력과 죽음이 난무하던 어둠의 무대는 후반으로 갈수록 빛과 사랑과 생명의 무대로 바뀌는데,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관객들은 다소나마 아픈 기억과 트라우마를 치유한다. 어느 시간, 어느 공간에서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인류의 보편타당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앞으로 오페라 박하사탕이 광주를 뛰어넘어 해외 무대에서도 울려퍼졌으면 하는 까닭이다.

‘80년 5월 광주’ 당시 어머니를 잃은 극중 인물 박명숙은 ‘삶은 아름다워’란 노래를 부른다. 40년 넘게 ‘광주’를 가슴속에 품어 온 작곡가와 연출가의 메시지가 스며 있는 아리따. “상처가 깊다는 말은 견디 세월 또한 깊다는 것/ 상처가 많다는 것은 이겨 낸 슬리가 많다는 말/ 푸르른 소나무처럼 우아한 진주처럼/ 우리는 강하고 우리는 아름다워/ 삶을 사랑하니까 삶은 아름다워 삶은 아름다워라.” /song@kwangju.co.kr

광주의 미래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할 때

가 완성차 생산이라는 결실을 맺은 것은 광주의 미래 비전을 앞당긴 대표적인 사례다. 사업 초기 성공을 확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지만 ‘GGM’은 이제 현실이자 대한민국 자치단체의 선도 모델이 됐다.

여는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광주는 수십 년간 고착된 수도권 쏠림과 집중 현상으로 고전해 오고 있다. 최근 감사원은 보건복지부·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저출산·고령화 대책과 인구 구조 변화 대응 실태를 감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현재 수준으로 저출산·고령화가 지속되면 30년 후에는 부산과 대구 등 13개 광역시·도의 인구가 2017년 대비 총 500만 명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그럼에도 청년층을 중심으로 수도권 쏠림 현상이 지속되면서 ‘지방 소멸’ 현상도 가속할 것으로 전망됐다.

인구·경제의 수도권 쏠림 현상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세계적으로도 심각한 문제의 하나다. 영국의 역사학자 벤 윌슨(Ben Wilson)은 저서 ‘메트로폴리스’(Metropolis)에서 이렇게 말했다. “오늘 날 세계 경제는 몇몇 도시와 도시권에 치우쳐 있다. 2025년이면 총 6억 명(세계 인구의 7퍼센트)의 인구를 지닌 440개 도시들이 전 세계 국내 총생산의 절반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 오늘날의 여러 현대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분열은 세대나 인종, 계급, 도농 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대도시와 나머지 지역 즉 세계화된 지식 경제에서 뒤쳐진 촌락, 교외, 소도시들 간에 일어난다.” 섬뜩한 진단이지만 실제 심각한 수도권 쏠림과 그 폐해를 겪고 있는 광주로서는 당연한 과제이자 현실이다.

문에서 이렇게 밝혔다.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에 품격이 드러난다. 나만의 체취, 내가 지닌 고유한 인향(人香)은 내가 구사하는 말에서 뿜어 나온다. 말을 의미하는 한자 언(言)에는 묘한 뜻이 숨어있다. 두 번(二) 생각한 다음 천천히 입(口)을 열어야 비로소 말(言)이 된다. 사람에게 품격이 있듯 말에도 나름의 품격이 있으며 그게 바로 언품(言品)이다.”

가을은 익은 곡식을 거둬들여야 하니 수성(守成)의 계절이라고 했다. 내가 한 말이 내놓은 만큼 돌아움을 상기하여 ‘심심해수(心深海水) 구중근룬산(口重峻崙山)’이라는 말을 가슴에 담았으면 좋겠다. 마음 씩씩이는 넓고 깊은바닷물처럼 깊어야 하고, 입은 근룬산(중국 전설상의 높은 산)처럼 무거워야 한다’는 뜻이니, 막말이 주는 업보를 되받지 않도록 늘 말조심할 일이다.

소생(蘇生)과 성장, 결실에 이은 영락(凝露)의 순환이 자연의 섭리이듯이,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것도 있음을 아는 것이야말로 가을을 맞는 지혜가 아닌가 싶다. 유난스러웠던 무더위와 잦은 비를 보내고 맞이하는 이번 가을이기에 한광일의 동시 ‘생각하는 나무’가 새삼스럽게 다가온다.

“나뭇잎은 어쩌면 / 나무들의 / 생각인지도 몰라 // 봄 / 뽕죽뽕죽 / 듣는 생각 // 여름 / 푸룻푸룻 / 펼쳐낸 생각 // 가을 / 알뜰달뜰 / 재미난 생각 // ‘이게 아닌데’ / ‘이게 아닌데’ // 온갖 생각 / 다 펼쳐버리고 / 다시 생각에 잠기는 / 겨울”

광주시는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상무지구 일대 ‘도심 융합 특구’ 선도 사업지에 2025년까지 삶과 일, 여가가 연계된 복합 인프라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혁신도시나 기존 산업단지가 도심 외곽에 위치한 탓에 MZ세대로 대표되는 젊은 층의 문화, 여가 생활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면에 착안하여 광주시에서 가장 ‘핫’한 상무지구를 택했다는 것이 매력적이다.

미래를 책임질 젊은 세대의 욕구를 반영하여 지역의 인재들이 수도권으로 향하는 대신 기업이 인재를 찾아 지역으로 모이는 모습을 그려본다면 때이른 생각일까. 하지만 GGM이 현실이 되었듯이 수도권과 경쟁하는 도심 융합 특구 또한 현실로 만들 수 있다. 미래 성장 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해 새로운 혁신 일자리 1만 개를 창출하고 최근의 생활 의식 및 행태를 반영한 맞춤형 정주 환경을 조성한다면 말이다. 여기에서 미래를 대비하는 스마트 그린 환경 조성, 도전이 일상화되는 혁신 거점을 조성한다면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혁신 창업 융복합 공간에는 혁신형 기업의 미래기술 선도공간, 수도권 선도기업 이전 및 창업 성공 기업 등 액셀러 기업 입주 공간, 선후배 기업의 멘토링·컨설팅·기술트렌드·오픈 아카데미 공유 공간 등이 들어서게 된다. 도심 융합 특구 사업은 삶과 일, 여가, 배움이 어우러진 복합 타운의 특성상 주거·문화·의료·복지 등 핵심 기업과 인재들이 요구하는 인프라를 얼마나 충족시키느냐가 관건으로 부각되고 있다. 광주 도심 융합 특구 사업을 앞당기기 위해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지를 기대해 본다.

社說

대선 후보들 호남 공약 좀 더 신선한 것 없나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이 본격화하면서 호남 표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체적인 경선 판도가 1차 선거인단 투표(슈퍼위크·12일)와 추석 연휴 직후의 호남 지역 경선(광주·전남 25일, 전북 26일)에서 결정지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64만 명에 달하는 1차 선거인단의 경우 호남 색채가 뚜렷하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정치권에선 1차 선거인단에 호남 및 전국의 호남 연고 유권자들이 40% 정도 참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호남 지역 경선 선거인단은 20만3613명으로 총정(7만64532명), 대구·경북(1만6128명), 강원(1만6278명) 선거인단 합계의 두 배에 이른다. 호남 표심이 어느 후보로 향하느냐에 따라 경선 판도에 지각변동일 일 아닐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각 후보 진영에서는 호남 민심의 눈높이에 맞는 공약 발굴과 메시지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문제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출마한 예비후보들이 제시한 국가균형발전 및 호남 발전 공약이 대부분 과거 정부에서 나온 정책과 차별성이

학교발 집단 감염 확산 방역 태세 다잡아야

학력 격차 해소를 위한 전면 등교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광주·전남 각급학교에서 학생과 교사의 집단 감염이 잇따라 방역 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광주시 북구의 한 중학교에서는 그제 학생 11명과 교사 두 명이 확진된 데 이어 여서는 학생 및 가족이 추가로 한 명씩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방역 당국은 최초 감염자가 나온 3학년 학생뿐만 아니라 1·2학년까지 전체 학생 312명에 대해 전수 검사를 벌이고 있다. 이 학교의 1·3학년 수업은 오는 17일까지 원격으로 전환됐다.

전남 광양의 한 중학교에서도 학생 22명이, 순천 모 중학교에선 11명이 각각 집단 감염돼 해당 학년 모두 원격수업으로 전환됐다. 광양의 경우 학생 가족 여덟 명이 함께 확진되면서 학교를 넘어 지역사회

확산 위험이 번지고 있다.

문제는 학교 현장의 방역 대응이 너무 허술하다는 점이다. 전남도 역학 조사 결과 광양의 중학교는 다른 반 학생들과의 접촉이 적절히 통제되지 못했고, 냉방기 작동 시 외부 환기나 마스크 착용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면 등교에 앞서 교육청을 통해 전달된 방역 지침이 일선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집단 감염을 키운 것이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전면 등교를 가능하게 하려면, 학교 당국이 방역 태세를 더욱 다잡고 학생들과 가족들도 한 마음으로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할 것이다. 집단 면역 형성을 위해 고 2 이하 학생들에 대한 백신 접종 또한 서둘러야겠다.

無等鼓

17세기까지만 해도 유럽인들은 ‘모든 백조는 흰색’이라고 생각했다. 그러한 고정관념은 1697년 영국인 박물학자 존 레이선이 호주에 한 호수에서 검은색 백조(블랙 스완)를 처음 발견해 학계에 보고하면서 깨졌다. 그 후 블랙 스완이란 말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나 불가능하다고 인식된 상황에서 실제 발생하는 것’을 가리키는 은유적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다.

1877년 초연된 차이코프스키의 교향 발레 ‘백조의 호수’에 블랙 스완이 등장하는 것도 블랙 스완이 상상이 아닌 현실로 확인됐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백조의 호수에 등장하는 블랙 스완 ‘오달’은 화이트 스완 ‘오데트’의 연적(戀敵)이며 고혹적인 매력으로 지그프리트 왕자를 유혹하는 악역이다.

블랙 스완은 월가의 투자 전문가인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가 2007년 자신의 저서에서 사용하면서 경제용어로도 일반화됐다. 탈레브는 블랙 스완을 발생 가능성은 없어 보이지만 일단 발생하면 엄청난 충격과 파급효과를 가져오는 사건으로 규정했다. 그는 미국의 경제대공황이나 9·11테러를 블랙 스완의 사례로 소개하면서 ‘0.1%의 가능성이 모든 것을 바꾼다’는 말과 함께 최악의 파국이 월가를 덮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블랙 스완이 더욱 주목받게 됐다.

옛그제 블랙 스완 한 마리가 중국 정치의 상징인 댜안뎬(天安門) 광장을 배회하다 사라졌는데, 이를 두고 대륙에서는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모양이다. 중국 관영 매체는 인근 공원에서 날아 온 것으로 추정하면서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지만, 시진핑 국가주석이 수 차례 블랙 스완을 언급한 때문인지도 모른다. 백조의 호수에 등장하는 블랙 스완 ‘오달’은 화이트 스완 ‘오데트’의 연적(戀敵)이며 고혹적인 매력으로 지그프리트 왕자를 유혹하는 악역이다.

블랙 스완은 월가의 투자 전문가인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가 2007년 자신의 저서에서 사용하면서 경제용어로도 일반화됐다. 탈레브는 블랙 스완을 발생 가능성은 없어 보이지만 일단 발생하면 엄청난 충격과 파급효과를 가져오는 사건으로 규정했다. 그는 미국의 경제대공황이나 9·11테러를 블랙 스완의 사례로 소개하면서 ‘0.1%의 가능성이 모든 것을 바꾼다’는 말과 함께 최악의 파국이 월가를 덮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블랙 스완이 더욱 주목받게 됐다.

옛그제 블랙 스완 한 마리가 중국 정치의 상징인 댜안뎬(天安門) 광장을 배회하다 사라졌는데, 이를 두고 대륙에서는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모양이다. 중국 관영 매체는 인근 공원에서 날아 온 것으로 추정하면서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지만, 시진핑 국가주석이 수 차례 블랙 스완을 언급한 때문인지도 모른다. 백조의 호수에 등장하는 블랙 스완 ‘오달’은 화이트 스완 ‘오데트’의 연적(戀敵)이며 고혹적인 매력으로 지그프리트 왕자를 유혹하는 악역이다.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